더불어민주당

보 도 자 료

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

보도일시	2025.5.22.(목) 즉시 배포
담당처	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(단장 : 안규백)
담당자	박영화 팀장(010-4652-0520) / 김윤진 팀장(010-5672-8877) / 나호선 팀원(010-9073-1328)

“전북 시민·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”

- 22일(목) 전주향교, 전북 대표 시민사회·문화예술인 11만5천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

- 전북 상인회, 협동조합, 예술인 단체, 자원봉사 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 주축

- 안호영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, “후보 지지를 넘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향한 선언 ”

□ 전북특자도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 11만 5천여명이 5월 22일(목) 오전 10시 30분,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향교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.

□ 이번 지지선언은 전북 지역상인회, 협동조합, 예술인 단체, 자원봉사 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, 지역사회의 폭넓은 민심이 결집된 상징적 행사로 평가된다.

□ 특히 조선시대 교육과 정신문화의 중심이자 공정과 정의의 상징 공간인 전주향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, “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:를 향한 전북의 시대정신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□ 이날 선언에는 ▲이석동(한옥마을 상인회장) ▲김홍철(한국상권연합회 전북연합 전주시지회장) ▲김영구(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중앙회장) ▲이수남(한국노현 자원봉사회 전북연합 회장) ▲오춘자(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) ▲한숙(서학예술마을 협의회 촌장) ▲이재덕(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회장) 등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다.

□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 안호영 의원은 “오늘 전북의 정신과 혼을 지켜오신 시민사회와 예술계 12만 여 분의 지지 선언은,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큰 용기를 안겨주는 역사적인 장면이다”고 감격해 했다.

□ 아울러 “이번 선언은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,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태평성대,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언”인만큼 “전북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서 더 크게 울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이번 선언은 5월 14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지지 선언에 이은 전국 릴레이 지지 행사의 일환으로, 광주, 대구, 부산에 이어 전주까지 이어지는 전국적 민심 결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

※ 별첨 : 행사사진